

상행대동맥 및 대동맥궁의 수술

경북대학교병원 흉부외과학교실

이응배 · 조준용 · 허동명 · 전상훈 · 장봉현 · 이종태 · 김규태

경북대학교병원 흉부외과에서 1993년 12월부터 1995년 5월까지 14례의 상행대동맥 및 대동맥궁질환을 수술 치험하였기에 보고 합니다.

성별로는 남자가 9명, 여자가 5명이었고, 수술시의 나이는 25세에서 65세로 평균 50.4세였다. 임상증상들은 대부분이 흉통이었으며, 이외 상복부통, 두통, 실신 등이 있었으며,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었다. 과거력으로 4명에서 고혈압이 있었고, 3명의 대동맥판륜 확장 환자중 2명이 마르팡 증후군(Marfan's syndrome)이었고, 술전에 4명이 심막천자를 시행하였고 이중 3명이 심압전으로 인한 속의 증상을 보였다. 심막천자시 양상은 혈성으로 250cc에서 400cc 가량 배액되었다.

진단은 급성 대동맥 박리가 6례(43%)로 4례는 파열이 되었으며, 상행 대동맥류가 4례(29%)로 1례에서 대동맥궁까지 확장되어 있었고 3례에서 파열이 되었으며, 대동맥 판륜확장이 3례(21%)로 1례에서 파열이 동반되었고, 대동맥궁류가 1례(7%)였다.

수술은 전체 14례중 9례에서 응급으로 시행하였고, Cabrol씨 술식이 6례, Cabrol씨 술식과 대동맥궁 치환을 겸한 경우가 1례, 변형된 Bentall씨 술식이 1례, 상행 대동맥 치환이 4례, 대동맥궁 치환이 1례 그리고 상행 대동맥 치환과 대동맥궁 치환을 겸한 경우가 1례였다. Cabrol씨 술식에는 모두 Carbo-seal valved conduit를 사용하였으며, 대동맥 치환에는 대부분에서 Vascutek conduit를 사용하였다. 평균 대동맥 차단시간은 129분이었고 5례에서 순환정지를 시행하였으며 시간은 평균 49분이였다.

술후 합병증으로는 순환정지를 62분 시행한 환자가 경련을 보였고, 심방세동이 2례, 흉골열개가 1례 그리고 종격동염이 1례 있었다. 술후 조기사망은 2례에서 있었으며 1례는 지속적인 출혈로 수술실에서 사망하였고, 1례는 술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술후 36일에 사망하였다. 종격동염이 있던 환자가 재입원하여 피부열개 폐쇄 후 리도카인(Lidocaine)으로 인한 속으로 사망하여 만기사망이 1례에서 있었다.

11명의 생존 환자들의 추적관찰은 2개월에서 20개월로 최종추적시의 상태는 전부 양호하였다.